

就寢時 義齒床을 裝着할 것인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申 範 哲

이 문제는 나 自身도 別다른 研究나 實驗成績을 臨하지 않고 여러 先輩諸位와 臨床的으로 體驗한 바를 外國文獻과 推理하여 記述하고자 한다.

總義齒床을 裝着하는 患者는 大概 高齡者 即 50歲以上 또는 靑少年層에 있어 어떤 病的 原因으로 缺損部位를 義齒床으로 裝着하는 關係로서 義齒를 操作할 때에 患者의 諸 診査를 할 것은 勿論이거니와 患者의 味覺, 消化吸收度, 外貌, 全身의 營養問題, Allergy性 등을 精密하게 診査하여 義齒床設計에 臨하여야 할 것은 周知하는 事實이다.

이러한 條件外에도 義齒床을 裝着하여 安定感 即 異物感이 없어야겠고, 術者로 하여금 生理的 無害性인 材料를 選擇할 것이며, 또한 無臭, 味覺, 觀覺, 觸覺, 發音 등에 障礙가 없어야 할 것은 勿論이거니와 熱에 對한 溫冷에 感觸度도 考慮할 것이고 患者 自身이 늘 使用하는 義齒床에 對하여 清潔을 留意해서 齒石이나 齒垢 Nicotine 등이 附着하지 않도록 늘 清掃하는 習性도 敎示해야 되겠다.

全部床義齒나 局部床義齒를 莫論하고 正確한 設計와 精密한 義齒床을 操作해야 할 것이며 複合材料로서, 되도록이면 薄하고 強靱한 生理的 機能의인 有床義齒를 製作하는데 努力을 기우려야 하겠다.

以上과 같은 見地에서 操作한 有床義齒를 患者立場에서 就寢時에 義齒裝着을 할 것인가, 또는 撤去할 것인가?에 對하여 여러 條件에 依하여 說明코져 한다.

總義齒와 局部義齒에 있어서는 架工義齒와는 全然 달라서 咀嚼壓을 받지 않았던 顎頂 또는 口蓋部의 硬軟組織, 粘膜 粘膜下組織等に 義齒床으로 被覆되어 咬合壓力을 받게되는 關係로 해서 처음 義齒床을 裝着하며는 粘膜에 過敏 感覺으로 因하여 異物感 또는 嘔吐作用, 粘膜充血, 齒齦移行 部位의 潰瘍 등이 생기므로 咀嚼機能을 發揮할러는 相當한 時日을 要하게 된다. 이와 隨伴해서 口腔粘膜과 粘膜下組織, 顎頂에 變化를 招來하는 것으로 이 變化하는 程度를 印象法이나 義齒床材料, 床의 適合度, 安定度, 咬合關係習慣性等 여러가지 條件에 따라 差異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術者 自身의 操作過程

과 敎示가 重要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바 없다.

義齒를 처음 裝着하거나 새로운 義齒를 裝着하였을 때는 患者 口腔內에서 安定度 또는 義齒를 裝着하는 習慣性을 가지기 위해서 就寢時에도 裝着할 것이고, 咬合關係 床緣의 길이, 床面의 粘膜에 對한 壓力의 均等度, 習慣性의 有無, 咀嚼筋과 顎顏面諸筋의 狀態를 cheek할 것은 勿論이거니와 義齒床材料에 依한 Allergy性 또는 아후타性口內炎, 口腔 灼熱感 등에 症狀이 發生할 때는 當然히 撤去(義齒床)해야 할 것이다.

義齒裝着後 短時日이 經過後 顎骨의 變型으로 義齒不適合이 생기며 拔牙를 處置하고 어느 정도 時日이 經過한 後 優秀한 義齒를 裝着하며는 骨新生과 病的 顎骨變型이나 變化는 多少 減少된다고 하나 實質的으로는 義齒床은 咬合力으로 因하여 咬合壓에 크기와 顎骨周圍組織에 對하여 均等한 咬合壓을 保有하느냐가 問題되는 것이다.

咬合壓力이 顎骨에 一津的으로 分布되며 義齒床下에 加해지는 힘이 平等할 때는 骨에 新生, 또는 顎骨에 義齒床이 適當히 適合하며 安定도가 좋아지며 生理的으로 適合도가 증진되는 關係로 顎骨의 萎縮도 안 생기고 咀嚼率도 完全하게 될 때는 夜間 即 就寢時에도 義齒床을 裝着하는 것이 維持力 또는 安定性을 더욱 높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思料된다.

義齒床에 對한 咬合 壓力이 大端히 크고 顎骨에 生理的 適應이 잘 안되며 咬合壓에 不均等 或은 咬合不良 側方運動時 義齒床에 動搖가 있을 때는 義齒床裝着으로 因한 骨에 吸收를 促進하여 時日이 經過함에 따라 점점 維持力 또는 適合度 安定性이 弱화되며 慢性 炎症狀態로 移行되며는 粘膜에 發赤, 腫脹 部分의 肥大(齒齦이나 齒齦移行部), 骨에 萎縮을 이르기므로 臨床的으로는 顎骨에 變型을 볼 수 있으므로 이런 狀態에 있어서는 就寢時 義齒裝着은 더욱 維持力과 安定度を 喪失하게 된다. 以上과 같은 見地에서 諸臨床家들께서는 어떠한 方法과 技術으로써 Impression taking으로 咬合壓에 對한 壓力에 平等하게 分布될 수 있는 印象을 採得하느냐에 더욱 努力을 기우려야겠다. 實際로 現在 義齒床을 裝着하는 患者들은 그 生體로 하여금 義齒床을 生理的으로 適合도를 증진시켜 주므로 해서 相互의 協同아래 適合性이 증진되고 咀嚼機能을 持續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一定한 期間이 經過된 義齒床 安定度나 義齒床의 動搖도가 甚한 義齒床은 再操作하는 方向으로 敎示를 해야 할 것이다.